



##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62년만에 고국품으로 국제 수사공조로 불법반출 문화재 첫 환수 성과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화폐를 찍은 인쇄판(원판)이 한국전쟁 중에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6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지난 8월 3일 오후 3시에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변영섭 문화재청장, 채동욱 검찰총장, 성김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정부로부터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 인쇄 원판’을 전달받았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덕수궁에 소장돼 있었으나 참전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됐다가, 2010년 반출자의 유족이 미국 미시건주 소재 경매회사에 의뢰한 경매를 통해 소재가 확인됐다. 이에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은 전쟁중 국외 문화재 반출의 불법성을 고지하고 경매 중지를 요청했으며, 경매직후에는 경락자인 한국인에게 대금입금 및 인수언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하지만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지난 1월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을 한국인 경락자로부터 압수하고, 7월 몰수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환수에 이르렀다.

이번 환수는 국내 문화재 환수 사상 최초로 국제 수사공조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문화재청, 대검찰청, 외교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공조체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환수를 기념해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이귀영)은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을 8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과 황실’ 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한다.

### 근대적 화폐 제도 도입 위해 태환서 신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892년(고종 29) 근대적 화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신식화폐조례를 공포, 인천전환국을 설치하고 그와 동시에 신화폐와 구화폐의 교환업무를 담당하는 태환서를 신설했다. 태환서에서는 호조태환권을 발행해 구화폐와 교환함으로써 화폐제도를 정비하고 호조태환권을 신화폐와 교환해 회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50냥권, 20냥권, 10냥권, 5냥권 등 총 4종의 호조태환권을 제조했다.

그러나 1893년 전환국을 운영하던 일본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이 인천전환국의 운영권을 되찾은 후 전환국에서 제조된 호조태환권을 소각해 빛을 보지는 못했다.

### 청동으로 제작된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이번에 환수된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은 1892년(고종 29년) 근대적 화폐 제도 정비를 위해 설치한 태환서(兌換署)에서 구권 화폐의 유통정지와 신권 화폐의 교환을 위한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을 인쇄하기 위해 제작한 원판이다.

10냥권 호조태환권의 인쇄원판으로, 가로 15.875cm, 세로 9.525cm, 무게 0.56kg의 청동 재질로 주조됐다. 상단과 하단에는 가로로 ‘戶曹兌換券(호조태환권)’, ‘大朝鮮國政府典賣局製造(대조선국정부전환국제조)’, 좌우에는 세로로 ‘戶曹(호조)’ 및 ‘태환서(兌換署)’, 중앙에는 ‘십냥(拾兩)’과 그 아래에 ‘此券以通用正貨交換也’ 및 ‘이 환표는 통용하는 돈으로 교환하는 것이다’라고 양각돼 있다.

### 덕수궁 소장 유물 호조태환권, 한국전 참전 미군이 불법 유출

호조태환권은 1951년 한국전 당시 덕수궁에 소장돼 있던 중, 참전 미군인 A씨에 의해 미국으로 불법 유출됐다. 이후 2010년 4월 A씨의 유족이 미국 미시간주 옥스퍼드시 소재 경매회사에 경매 의뢰해 세상에 알려졌다.

### 한미 수사공조로 호조태환권 환수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이종철 부장검사)은 미국 미시간주 옥스퍼드시 소재 경매회사가 실시하는 경매에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등을 비롯한 한국 골동품이 다수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전정 중 국외 문화재 반출의 불법성을 고지하고 경매 중지를 요청하고, 경매직후에는 경락자인 한국인 B씨에게 대금입금 및 인수 연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주미 법무협력관은 경매 직후 관련 사실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미국 국토안보부 및 법무부에 형사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2010년 6월 미국 이민집행관세청은 대검찰청 검찰국제협력단에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내사 관련, 공조를 요청함으로써 문화재 환수 관련 한·미 수사공조 개시했다.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미국측의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수사와 관련해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진위 여부, 한국정부의 소유권 유무, 문화재 유출 경위 및 문화재 관련 국내 법령 근거 등 관련 증거 및 참고 자료 등을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

2010년 9월 대검찰청은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청과



62년만에 고국품으로 돌아온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중이다.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수사공조의 공식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민집행관세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 지부를 통해 실시간 공조함으로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대검찰청·문화재청’ 3자 협력을 통한 문화재 환수 관련 한·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미국 연방장물거래금지법을 적용해 2013년 1월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경락자인 B씨를 체포하고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압수했다. 또한 2013년 2월 경매회사 대표를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한 결과 2013년 7월 몰수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환수에 성공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8월 3일 열린 환수식에서 “이번 호조태환권 환수는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문화재를 환수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제수사기관과의 상호 신뢰에 바탕한 공조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